



군종주보

2024년 12월 29일(제1227호) 예수, 미리아, 요셉의 생기장 축일(기장 성회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을 이어갈 우리”

† 사람이 되신 주님께 영광!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사실 교회 밖 세상에서도 매년 12월 25일을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연세가 많으신데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강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산타할아버지, 수많은 선물과 뚝뚝한 빨간 할아버지 태우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느라 고생 많은 루돌프, 연금 수령하러 오는 머라이어 캐리의 재등장, 늙지 않는 ‘나 홀로 집에’ 케빈 등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기대하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단어이자 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즐거움의 정점은 12월 26일만 되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몇 주 앞서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이 등장하고 캐럴이 들려오던 세상인데 불과 하루만 지나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대신에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재밌는 것들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비로소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 활동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스스로

그 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 교회는 이 성탄절을 하루만 기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성탄 팔일 축제’라 하여 8일 동안 특별히 성탄절만큼 기뻐하며 지내도록 합니다.

지역 축제나 학교 축제를 하루 만에 끝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짧다며 그럴 거면 왜 축제하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것도 그러 한데, 하물며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만 딱 기뻐하고 끝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성탄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창입니다.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기에 예수님도 가정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장차 공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께서 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가정에 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보며 나 또한 예수님과 다르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작더라도 기쁨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신앙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카 2,52) 아멘.



오병준(미키일) 신부
오두기(육군 제8기동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집회 3,2-6.12-14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 2 특 시 콜로 3,12-2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루카 2,41-52
-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이홉 번째 시한

이상과 같은 이론으로 조선 조정과 백성들은 신자들과 서양 함선들에 대하여 큰 경멸과 증오와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오는 서양 함선들이 천주교 신자들인 줄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양 함선들을 무서워했고, 그 함선들에 대하여 굉장한 무엇이 있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여러 해 전부터 서양 함선이 자주 나타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서양 함선들을 해적선으로 여깁니다.

조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다음과 같이 수군거립니다. “저 큰 함선들은 틀림없이 해적선이거나 범피자들의 선박이다. 만일 그 함선들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권력을 갖는 어떤 국가에 속한다면, 어떻게 공공 권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이처럼 자주 침범할 수 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어찌되는가? 예의를 모르는 야만인이거나 강도질을 할 기회를 엿보는 도적놈임이 틀림없지 않겠는가?”

일반 서민이거나 시골 농사꾼들까지도 이와 같이 추리하고 이러한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백성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하여 최대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2년 안에 프랑스 함선들한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 나라에서 말살시키겠다고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 저희의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악대로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 저희는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저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저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옛 자비를 기억하시어, 저희와 당신의 모든 성인들의 기도를 어여삐 들어 허락하소서.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가족



어디 가족이라고,
매 순간 행복만 할까.

어디 식구라고,
매 순간 사랑만 가득할까.

그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가는 것이 가족이지.

하여,
다 태우고 남은
그 진주 같은 것을,
행복이라, 사랑이라
고백하는 거지.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르 네브 형제들(The Le Nain brothers), 1635년~1640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18x148cm / 개인 소장

프랑스의 르 네브 형제가 그린 이 작품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먹이인 지푸라기 위에 올려져 계신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성 요셉, 노파와 횃불을 든 청년(아마도 목동이리라)을 묘사하고 있다.

중앙에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하는) 흰 겉옷으로 싸고 계시며,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을 직접 바라보고 계신다. 성모님 뒤편으로 두 손에 깍지를 끼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요셉 성인이 보인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상 중에 보는 환시 같은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 중에 이 광경에 함께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른쪽의 횃불을 들고 있는 젊은이는 목동이며, 그 옆에 작은 노파도 이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후에 예수님의 수난을 예언하는 안나 성인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작품들이 그러하듯 예수님은 옷을 입지 않고 계신데, 이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목동이 작은 횃불을 들고 있으나, 이 마구간과 성모님의 얼굴을 밝게 비추는 것은 횃불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이는 감히 지상의 빛이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진리의 빛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곁에 오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천상의 빛을 우리 곁에 가까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생기장 특일: 육군본부 김용환 신부

◆ 교구장 통장

- 독수리(제1공수여단) 성당 성가정 축일 미사

때: 12월 29일(주일)

- 종무식/미사

때·곳: 12월 31일(화) 16: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 시무식/미사

때·곳: 2025년 1월 2일(목) 1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사랑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